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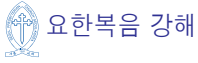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말씀과 증거자 Ⅲ

(요 1:6-8)

이종윤 원로목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온 자는 점차 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 만 높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 3. 신실한 증거

마태복음 3:11, 마가복음 1:7, 누가복음 3:16, 17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거듭 밝혔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 누구도 빛이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기적을 행했다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고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직 빛 되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신앙의 매개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8절).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알라’, 영어로 ‘but’이란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님을 알라 그러나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본성은 빛을 증거 하러 온 자라는 그 본성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 H. Dodd라는 신약 교수는 요한복음을 읽고 흥미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1:19-28까지 ‘그는 빛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29-34절까지는 ‘그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51절까지는 그 결과 그를 믿으러 온 첫 번째 사람들, 여기에 나타난 대로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절의 outline이 19-51절에서 다시 반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7, 8절은 서론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4. 본문이 주는 교훈

본문 6-8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고 증거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② 세례 요한은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생활을 하면서 오직 신앙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

람들은 생활로도 증거를 해야 되지만, 말로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입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와 무슨 상관인 있는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③ 열매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믿는 마음이 생기고 결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만 말했습니다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좇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양 하나가 없어진다면 주님 앞에서 이 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모였고 3천 명이 모였고 5천 명이 모였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교회를 공격합니다마는 신약성경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수가 왜 중요하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 결론

우리는 본문에서 ‘요한은 위대하구나, 요한은 하늘 아래서 가장 큰 사람이다’하는 것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거를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훈할 것은 교훈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면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인들 까닭에 아시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증언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열 한 제자의 증거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들의 증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계속되어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배방해금지 본안소송 건 승소판결!

- 박노철 목사 외 17명이 김광태 집사 외 24명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모두 기각 -
- 지난 안식년본안 1,2심 승소판결을 그대로 재확인하여 준 다른 재판부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7월 3일, 박노철 목사 외 17명이 2017년 7월 4일 김광태 집사 외 24명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방해금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시작 2년 만에 박노철 목사 등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회분쟁 초기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휴무를 이유로 반대측 교인들이 그의 예배 인도를 막아서자 두 차례에 걸쳐 무더기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반대측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기된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위 판결에서도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의 효력을 가지며 그 제정절차도 적법하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는 2017. 1. 1.부터 안식년을 가져야 하고, 이후 재시무를 위한 당회의 결의나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년 종료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라는 **지난 1,2심 본안판결 내용이 그대로 재확인** 되었고 이는 현재 심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판결로써 2017년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했던 두 건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과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45912 예배방해금지 등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피 고	별지2.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변 론 종 결	2019. 5. 22.
판 결 선 고	2019. 7. 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한 간접강제결정은 물론 그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하여 청구된 집행문부여건도 모두 그 근거를 상실하여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지난 잘못된 판결이나 결정들이 하나씩 순차로 바로 잡히는 모습이다.

## 아쉽게도 임시당회결의에 대한 박두호 장로의 효력정지가처분 건은 인용됨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7월 2일, 박두호 장로가 제기한 지난 1월 16일자 임시당회결의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 당시 임시당회를 인도한 이종윤 목사의 대리당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회는 이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4월 12일 법원으로부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받아 그의 인도로 위 1월 16일자 임시당회 결의 내용 중 꼭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이미 다시 결의절차를 밟아 현재 시행 중이므로 위 효력정지가처분이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교회업무진행에 영향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다.

## -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건 - 법원으로부터 100명에게 소송서류 송달 시작 불법점거가 계속 되는 동안 추가소송은 계속 될 것

지난 6월 10일 박노철 목사 외 99명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박노철 목사 측에 본격적인 소송서류 발송이 시작되었는데 그중 극히 일부 교인들만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교인들 대부분은 이리저리 피하고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 측 주장대로 자신들의 2층 이상 점거가 적법하고 오히려 이번 제기된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히 박노철 목사, 박두호 장로 등 분쟁의 맨 앞장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부 송달 받은 교인들

중 어느 한사람 혼자 부담할 수도 있는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책임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부터 당당하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것이다.

잠시 시일을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손해배상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판결 승패와 상관없이 점거가 계속되는 한 언제까지든 발생하게 되고 이번에 대상이 된 100명 이외에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을 상대로도 앞으로 추가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원판결 상고 건이 속히 기각되어 서울교회 회복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찬성·심명숙 주화인 이선희 전용순  
윤요섭·안재희 송재현·선순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출 23, 34장, 레 23장, 신 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2019 농어촌전도대



지난 5년, 하나님의 은혜라!



홍창훈 집사 (2019 농어촌전도대 지원팀장)

올해 2019년도 농어촌전도대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로 2015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5년째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교회의 지속적인 전도 지원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도 수도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도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가고 있어 이러한 지원과 도움에 대해 담임목사인 김춘기 목사님께서도 교회 부흥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전도봉사는 7월 14(주일)부터 18일(목)까지 의료봉사팀(14일-15일)을 시작으로 지원팀, 축호전도팀, 이미용팀, 만나팀, 여름성경학교팀, 이상 5개 팀(15일-18일)이며 총 6개 팀으로 구성하였고 전체 전도 참여 봉사인원은 의료봉사팀을 포함 50여 명이 됩니다.

특별 봉사사역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축호전도팀은 예년에 비해 봉사참여 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며 3개 팀(10명)으로 구성되어 전도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지역이 워낙 넓어 하루 오전 오후 총 6시간을 강행군을 해야하는 축호전도팀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믿음으로 무장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동참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전도팀에서는 특별히 활영팀(안선광 집사, 고영숙 권사)이 별도로 조직되어 4일간 전도사역의 전 과정을 활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전도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용팀은 일년내내 머리손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파마 및 커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전문적인 미용기술을 갖춘 권사님들이 대거 봉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전도사역 중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인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팀은 3박 4일 동안 전도 봉사사역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참으로

힘든 사역입니다. 지난 몇 년간 보아왔지만 무더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음식준비를 하는 권사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특히 전도사역 마지막 날 '전도자초청 만찬 예배'에서는 100여 명의 식사준비를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 그야말로 대규모 만찬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름성경학교팀은 대상이 초·중학생들이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영접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으로서 대단히 보람있고 참다운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의료봉사팀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좋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시골에서 마땅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곳하기에 이 기회에 질 좋은 진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많은 참여가 있습니다. 이미용팀 못지않게 인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팀은 봉사사역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봉사자들이 맡은 사역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번 전도사역에 참여하는 봉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농어촌전도대

- 지도목사 : 서명철 · 대 장 : 최광성
- 지원팀장 : 홍창훈
- 지 원 팀 : 이강인 장창수 박한옥 이경순 최형열
- 전도팀장 : 김지수
- 전도 1팀 : 김순진 고영숙
- 전도 2팀 : 김정제 채교천 정금희
- 전도 3팀 : 이성희 박광식 남은희
- 전도팀 홍보 : 안선광
- 이미용팀장 : 나기태
- 이미용팀 : 전용순 이봉선 곽태수 김찬진 김선이
- 만나팀장 : 박현영
- 만나팀 : 박수옥 위성남 최종희 김영현 함정희
- 성경학교팀장 : 한대석
- 성경학교팀 : 김리나 오원종 최인에 최근우 고민정



영아·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임대중 집사 (유아부 부장)

주말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향하신 귀하신 뜻을 헤아려 봅니다. 비록 영·유아·유치·유년·초등부가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기에는 좁은 공간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며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뽕뽕망망한 눈망울로 전도사역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이 있기에 매 주일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유치부에서는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함3:2)"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영·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프

그램을 통해 교육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성경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인물 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영·유아부·유치부에서는 매주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성경 공부 및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체활동, 미술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아·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3일(토),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층 102호와 웨스터민스터홀에서 진행하며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교육받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3:9-10) ||

## 오늘은 맥추감사절

###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거행, 맥추감사헌금 드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오늘 I·II·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시작

### - 유아·유치·유년부 7월 13일(토) -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어제 7월 6일(토) 사랑부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7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7월 7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7월 14일: 고성의료 선교로 상담 없음
- 7월 21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7월 28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기사정정

- 홍해작전 수상자 누락자와 이름 수정
- 누락-그림그리기 장려상 : 최아준(유아)
  - 정정-그림그리기 소망상 : 이하온(유치)

## 등정



- 연주회 : 4교구 박광서 집사  
제14회 서울타악기악상블 정기연주회  
7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홀
- 득남 : 14교구 최지훈 한혜선 성도 6월 28일
- 금주의 식사 :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불고기, 양배추김치, 천도복숭아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영아부	7월 13일(토)	서울교회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 3:2)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7월 25(목) - 27일(토)	아가페타운	I am a Christian (신 6:18-19)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5(목) - 27일(토)	아가페타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 23:3)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월 15일(목) - 17일(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 (시 121:1-2)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7월 20일(토)	베델하우스	One Body of Christ (1 Cor 7:18-27)	김의창 목사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8일	월	시 130-136		창 42-46	
7월9일	화	시 137-144		창 47-50	
7월10일	수	시 145-150		출 1-9	
7월11일	목	잠 1-3		출 10-14	
7월12일	금	잠 4-6		출 15:1-21:32	
7월13일	토	잠 7-9		출 21:33-26:37	
7월14일	주일	잠 10-13		출 27-32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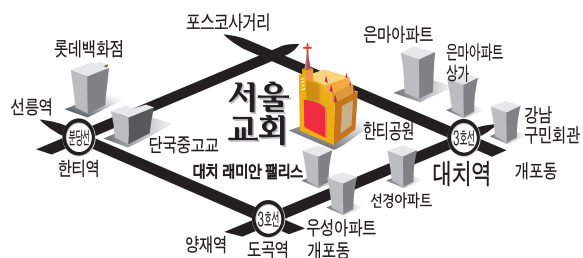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금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찬에 임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 영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예배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